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02 / 남계서원

위성사진 / 평면도 / 단면도 / 배치도

건축물

제향공간 / 강학공간 /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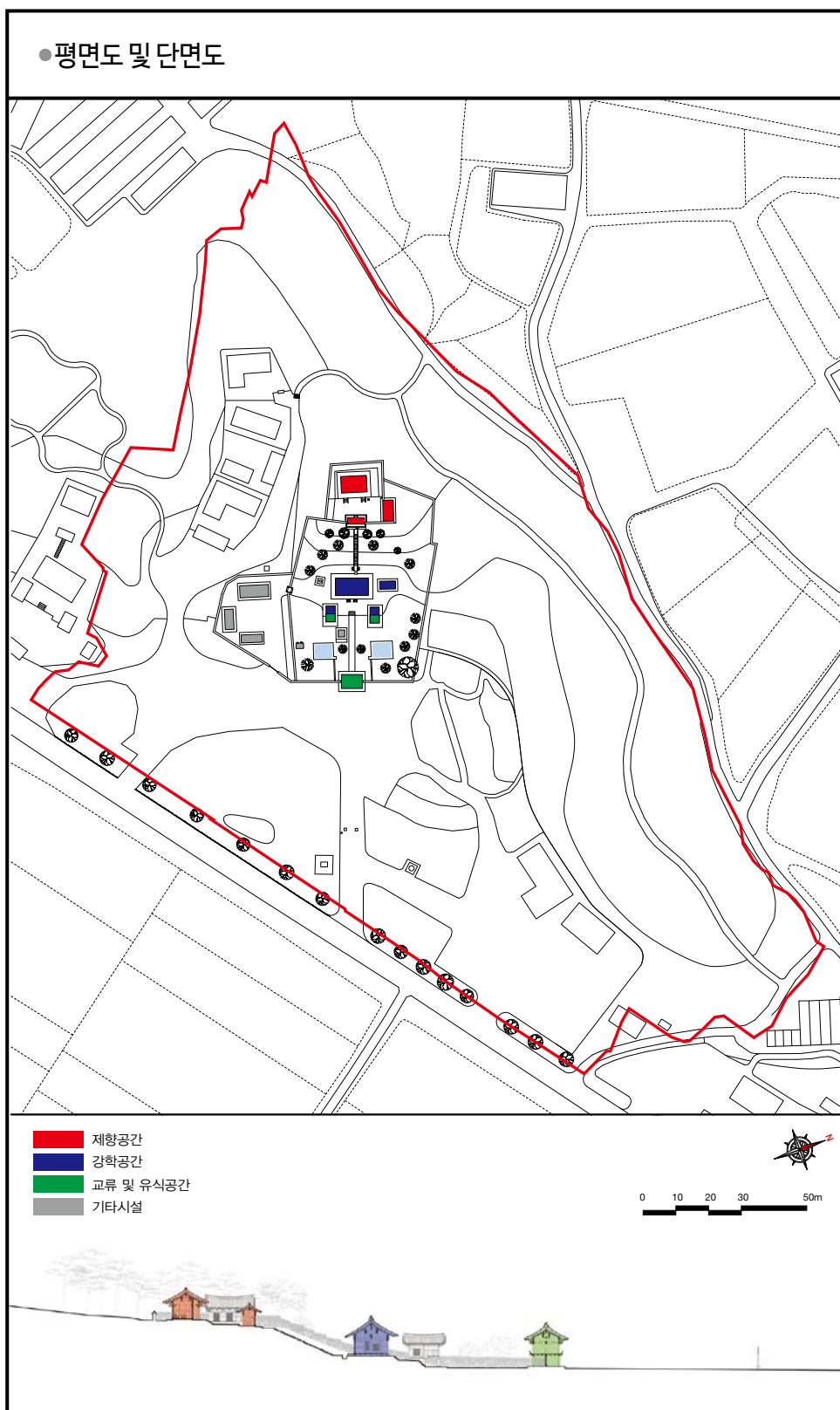
기록유산, 무형유산

고문서 / 책 및 책판 / 현판 및 기문 / 제향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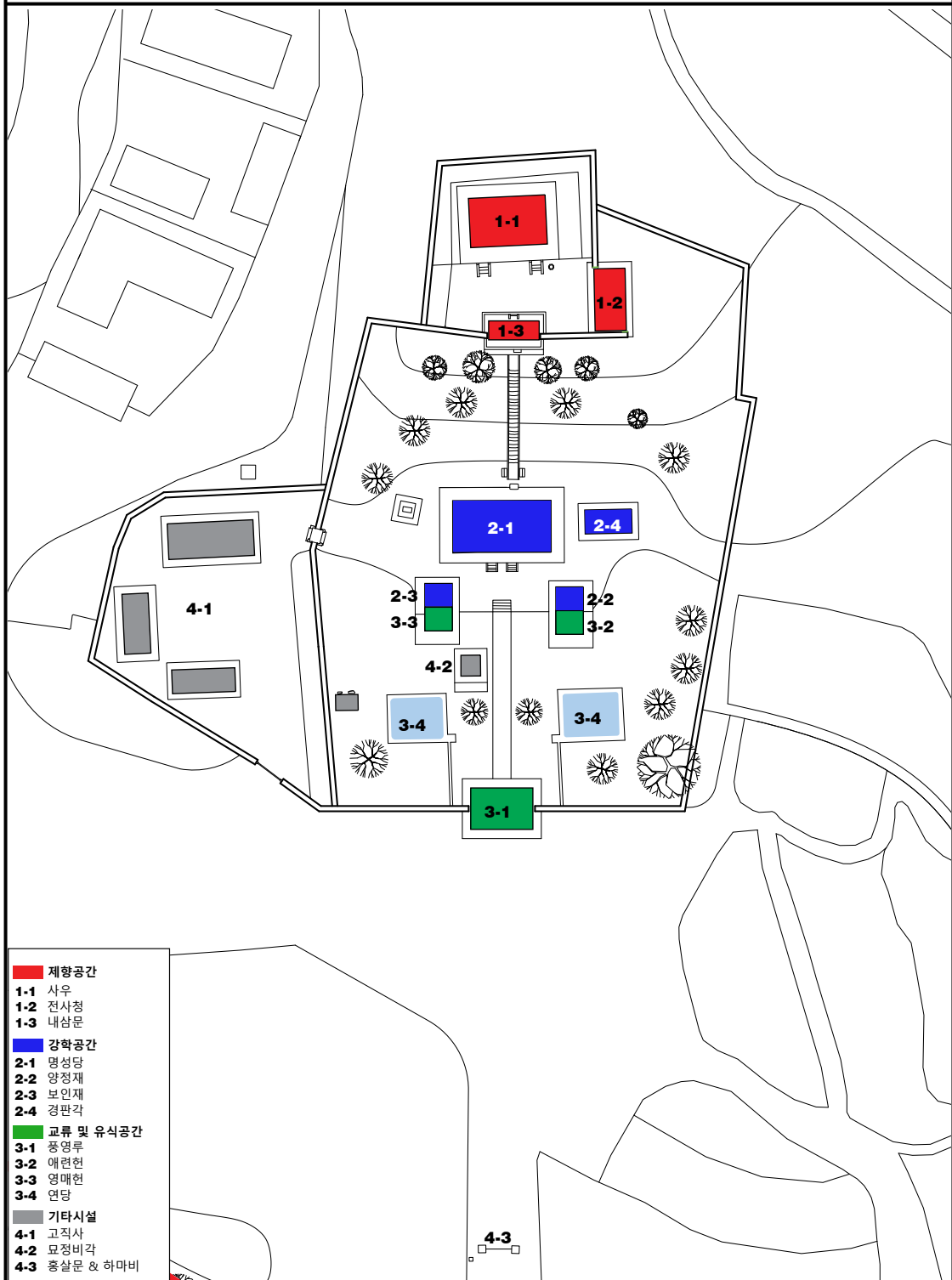
2. 남계서원

● 유산 및 완충구역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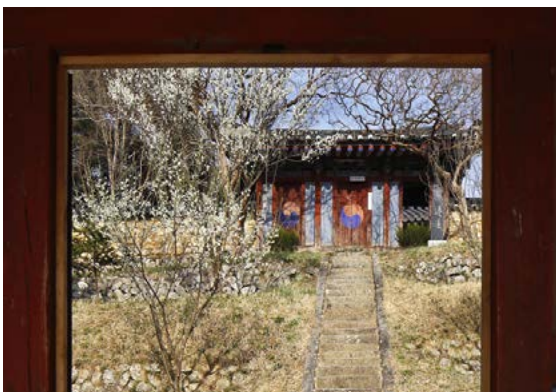


● 배치도



1) 건축물

제향공간



1-1

1-2

1-3

사우 (1-1)

제향인물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사우에는 정여창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좌우에 정온과 강익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정면 3칸, 측면 한 칸반의 아담한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현재의 건물은 20세기 중후반에 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사청 (1-2)

1569년(명종 14)에 건립하여 제향과 관련된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내삼문 (1-3)

제향공간의 진입문이다.

강학공간



2-1

2-2

2-3

2-4

강당 : 명성당(2-1)

1561년(명종 16)에 건립된 서원의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좌우 협실로 원장과 원임의 개인 연구실과 가운데 누마루로 학생의 강학을 위한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성당은 강당으로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는데, 왼쪽 협실은 거경재(居敬齋), 오른쪽 협실은 집의재(集義齋)라 하며, 유림의 회합 및 학문의 강론 장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집으로 일반적인 정형에서 벗어나 있다. ‘남계(濫溪)’와 ‘서원(書院)’을 따로 두 개의 편액이 걸려있다.

재사 : 양정재(2-2), 보인재(2-3)

1564년(명종 19) 군수 김우홍의 도움으로 건립하였으며 양정재는 동재(東齋), 보인재는 서재(西齋)로 한국에서 최초로 강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재사가 배치되는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 건물들에서 학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도서관 : 경판각(2-4)

최초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922년에 중수하여 서원의 강학활동과 관련된 교재와 목판 등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장서는 현재 보존관리를 위해 함양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3-1

3-2

3-3

3-4

풍영루(3-1)

풍영루는 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회합과 유식의 기능을 한다. 1841년(헌종 7)에 건립되었으나 1847년(헌종 13)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1849년(헌종 15)에 중건, 1937년에 대대적으로 수리하였다. 창건 당시는 '준도문(遵道門)'이라 한 것으로 보아 출입문의 기능만 한 듯하다. 이후에 서원 건축에서 누마루가 보편화된 18세기에 이르러 건립되었다. 풍영루라는 이름은 『논어(論語)』의 “기수(沂水)에 가서 목욕하고 무(舞雩)의 대 아래서 바람을 쐬면서, 시를 읊조리다가 돌아오고 싶다”는 구절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련헌(3-2), 영매헌(3-3)

양정재와 보인재의 1칸은 누마루 형식으로 만들어져 각각 애련헌(愛蓮軒), 영매헌(咏梅軒)이라 이름을 지었다. 사람들간의 회합과 유식을 목적으로 한다.

연당(3-4)

애련헌과 영매헌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바로 앞에 위치하여 유식의 기능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연못이다.

기 타



4-1

4-2

4-3

고직사(4-1)

조선시대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현대 시설로 변화하였던 것을 최근에 조선시대 형태에 맞게 복원되었다.

묘정비각(4-2)

제향인물인 정여창·정운·강익을 칭송하기 위해 1779년(정조 3)에 건립된 비석이다.

홍살문 & 하마비(4-3)

서원의 입구를 나타낸다.

2) 기록유산·무형유산

| 고문서 |



남계서원경임안 蘆溪書院經任案

■ 년대 : 1552~1687년 ■ 크기 : 30×22

1552~1687년 사이 남계서원의 원임(院任)인 원장(院長), 유사(有司), 전곡유사(典穀有司)를 역임했던 인사들의 명단이다. 각 명단 아래에는 재임 기간, 교체 시기 및 교체 사유, 그리고 해당 인물의 업적도 간략히 소개해 놓았다. 남계서원 운영을 주도했던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부보록 褒寶錄

■ 년대 : 1552~1913년 ■ 크기 : 26×29

1552년(명조 7)부터 1913년까지 남계서원에 납부된 일종의 기부금 장부이다. 여기에는 사족 및 지방관들로부터 기부 받은 각종 물목이 기부자의 성명과 함께 시기별로 나열되어 있다. 기부된 물목으로는 벼, 콩, 서적, 노비, 어물, 소금, 백지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원록 院錄

■ 년대 : 1651~1671년 ■ 크기 : 3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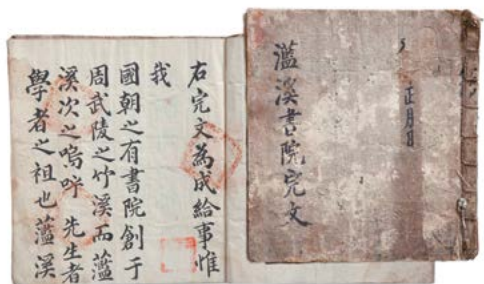
작성 당시 남계서원에 소속되어 있던 원생들의 명단들을 수록한 것이다. 원생이 거주지를 옮겼거나, 개명했을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성명 아래에 부기해 놓았으며, 만약 무반(武班) 가문일 경우 '반무(反武)'라고 기재하였다. 남계서원의 인적 구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남계서원전답양안 蘆溪書院田畝量案

- 년대 : 1740년(영조 16), 1780년(정조 4)
- 크기 : 49×30, 47×30.5(총 2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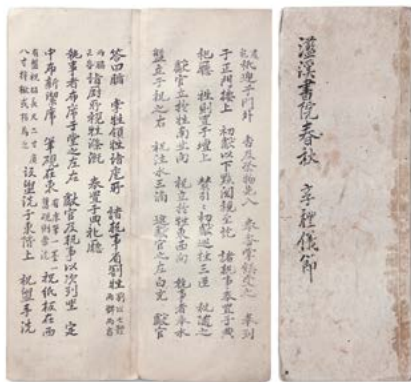
1740년(영조 16) 서원의 전답에 대해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청에서 양안(量案)에 의거하여 배긴 뒤 엮어 놓은 자료이다. 특히 1733년(영조 9) 새롭게 토지를 매입하고 방매한 사실 및 경작자 변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남계서원의 전답 소유 규모의 변천과 경제적 기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남계서원완문 蘆溪書院完文

- 년대 : 1843년(헌종 9)
- 크기 : 32×29

서원노비를 비롯한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10호(戶)에 대한 서원측의 군포(軍布) 징수를 관에서 인정해 주는 증명서이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서원과 해당 지방관과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 蘆溪書院春秋享禮儀節

- 년대 : 미상
- 크기 : 40×14(총 1책)

남계서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춘추향사의 시일(時日), 재계(齋戒) 하는 절차, 제물을 살피는 절차, 음식을 진설(陳設)하는 그림, 축문(祝文) 등을 수록해 놓은 문서로 작성 시기는 미상이다. 남계서원의 의례 절차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 문집 및 책판 |



일두선생문집 책판 一蠹先生文集 冊板

- 년대 : 1635~1919년, 미상
- 크기 : 24.0×37.0(책판 368매)

정여창의 문집으로 증손자 정수민(鄭秀民, 1577~1658)과 한강(寒岡) 정구(鄭逵, 1543~1620)가 함께 수집·검수한 것을 1635년(인조 13)에 처음 발행하였다. 이어 1743년(영조 19)에 도암(陶菴) 이재(李穡)가 초간본에 누락된 것을 보완, 편집하여 유집(遺集) 3권으로 발행하였다. 그 후 1919년에 남계서원에서 다시 정여창의 시문과 사우록, 그리고 정여창의 후손 정환주가 수집한 것을 모아 속집으로 부록을 포함 4권으로 발간하였다.(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166호)



개암선생문집 책판 介庵先生文集 冊板

- 년대 : 1686년(숙종 12)
- 크기 : 21×36

남계서원에 배향된 강익(姜翼, 1523~1567)의 문집으로 상권에는 시(詩), 서(書), 기(記), 추록(追錄)이 있고, 하권에는 세계(世系), 연보(年譜), 행장(行狀), 제문(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정지윤의 서문이 있으며 1686년(숙종 12) '남계서원개간(濫溪書院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이후에 보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집의 추록에 강익의 시조 3수가 있다.(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 현판 및 기문 |



남계서원 瀟溪書院

■년대: 1566년(명종 21) ■크기: 40×160

남계서원 사액 현판으로 특이하게 ‘남계(瀟溪)’와 ‘서원(書院)’이 두 개의 현판으로 나뉘어져 있다. 남계(瀟溪)란 서원 앞을 흐르는 시내의 이름으로 ‘물이 넘친다’는 뜻과 통하며, 연꽃을 의미하는 뒷산 연화산(蓮花山)과 함께 물이 풍부한 땅에 서원이 입지하였음을 함축한다.



명성당 明誠堂

■년대: 16세기 ■크기: 40×160

남계서원 강당의 현판으로 ‘명성(明誠)’이란『중용(中庸)』의 ‘참된 것을 밝히는 것을 가르침이라 하니, 참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참되게 된다’는 뜻이다. 교육을 통하여 참됨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남계서원기 瀟溪書院記

■년대: 1566년(명종 21) ■크기: 40×160

1566년(명종 21)에 강익(姜翼, 1523~1567)이 지은 기문으로 1552~1562년의 남계서원 건립과정과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학덕을 칭송하고 있다. 말미에 남계서원이 조선에서 두 번째로 창건되었음과 당시 건립을 주도한 서구연(徐九淵), 윤확(尹確), 김우홍(金宇弘) 3인의 공을 칭송하고 있다.



풍영루 風咏樓

■년대: 1841년(헌종 7) ■크기: 40×160

남계서원 문루의 현판으로 멀리 보이는 지리산의 봉우리들과 화림천(花林川)의 흐름에서 정여창(鄭汝昌)의 모습과 기상을 떠올릴 수 있다.『논어(論語)』의 내용 중 ‘기수에서 먹 감고 무우에서 바람을 쏘이고 노래하며 돌아오겠다’는 증점(曾點)의 뜻을 바로 여기서 느낄 수 있다 하여 풍영루(風咏樓)라 이름 지었다 한다.



풍영루기 風詠樓記

■년대: 1841년(헌종 7) ■크기: 39.5×154

1840년(헌종 6) 유림들이 의견을 모아 풍영루의 증축을 결정하고, 이듬해 6월에 완공한 사실과 중건을 주도한 인물들의 공을 칭송하고 있다. 정환필(鄭煥弼)이 지었다.



풍영루중건기 風詠樓重建記

■년대: 1849년(헌종 15) ■크기: 38.5×142.5

1847년(헌종 13) 화재를 입은 풍영루를 1849년(헌종 15)에 중건한 사실을 기록한 기정진(奇正鎭)의 기문이다. 또 이와 함께 정환필(鄭煥弼)의 청으로 기문을 작성한 사연과 풍영루의 유래와 배향자 정여창 등의 공적을 언급하고 있다.



양정재 養正齋

■년대: 16세기 ■크기: 40×160

남계서원 동재의 현판으로, 주역(周易)의 '교육함으로써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은 성인의 공덕이다'라는 것에서 따온 말이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인재 輔仁齋

■년대: 16세기 ■크기: 40×160

남계서원 서재의 현판으로『논어(論語)』의 '군자는 글로써 벼를 사귀고, 벼으로써 인을 돕는다'고 한 것에서 따온 말이다. 정여창(鄭汝昌)과 김굉필(金宏弼)이 벼으로써 서로 도운 사우(師友)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준도문 遵道門

■년대: 16세기 ■크기: 40×160

남계서원 풍영루 아래 문루에 걸린 현판으로 준도(遵道)란『중용(中庸)』의 '군자는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도를 좇아 행한다'는 뜻이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군자의 마음자세를 의미한다.

| 제향의례 |

원회(院會)에서 제관을 결정하는 남계서원(藍溪書院)

경남 함양에 위치한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 건립되어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을 제향하고 있으며, 1566년(명조 21) 소수서원에 이어 2번째로 사액 받았다. 초창기 한국 서원의 건물배치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서원이며 향촌민 교화의 기능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남계서원에서는 원회(院會)를 통해 미리 제관을 모두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회에는 원장을 비롯하여 함양의 선비 30여 명이 모여 제관을 선정하고, 바로 망기(望記)를 작성한다. 그리고 향사에서 쌀과 기장을 고두밥으로 만들어 진설하며, 헌관이 잔을 올릴 때마다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누어 붓는 삼제(三祭)를 행하고 재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관을 선정하는 원회(院會)

남계서원에서는 관례에 따라 서원 측에서 미리 추천하여 받아놓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삼헌관 등 14인의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을 선출한 다음에는 제관선정기를 작성하여 원회에 참여한 유림에게 확인한 후 강당에 붙여 공고한다.

주향위(主享位)에 희생으로 바친 돼지의 머리와 앞다리

남계서원에서는 희생으로 검은 색의 살아있는 돼지를 사와서 묘정의 성생단에서 성생례를 한 후 고직사로 가져가 잡는다. 희생의 규모를 구분하기 위해 돼지의 머리와 앞 두 다리는 주향위에 올리고, 뒷다리는 하나씩 배향위에 올린다.

고두밥으로 올리는 쌀과 기장

남계서원에서는 도동서원과 같이 쌀과 기장을 고두밥으로 만들어 진설한다. 도산서원과 같이 제물용 쌀과 기장을 씻는 의식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그냥 쌀과 기장을 제기에 담아 올린다.

생솔가지로 희생에 물을 뿌리는 성생례(省牲禮)

남계서원에서는 대축과 초헌관, 유사가 성생단을 돌면서 희생으로 쓰일 돼지에 흠은 없는지를 살핀다. 벽사의 의미로 솔가지로 돼지 위에 물을 뿌리고, 돼지가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세 번 묻는다.

각 신위마다 폐백을 올리고 재배하는 전폐례(奠幣禮)

남계서원에서는 분향 후에 폐백을 올리고 재배를 하며, 바로 초헌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전폐례 때 재배를 하지 않는다.

헌작 전 제주(祭酒)

남계서원에서는 ‘창주정사 석채의’와 같이 각 신위마다 헌관이 삼제주(三祭酒)한 다음에 헌작하고 사우 내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한다. 다른 서원에서는 헌작 후 재배가 없거나, 종헌을 한 후에 사우 뜰에서 삼헌관만 재배를 하기도 한다.

신위 앞 전작(奠爵)

남계서원의 삼헌 작의 위치는 신위 바로 앞, 즉 제상의 북쪽에 위치한다. 다른 서원의 경우, 삼헌 작의 위치는 대부분 제상의 남쪽에 위치한다.

양 창문을 닫는 함독(闔櫳)

남계서원의 위패는 다른 서원과 달리, 양창독에 봉안되어 있다. 대개 서원에서 위패를 봉안하는 함(櫳)은 좌(座)와 개(蓋)로 구성되어 있어서 뚜껑을 들거나 덮는데 반해, 남계서원에서는 양창독으로 되어 있어서 양창을 열거나 닫는다.